

### 공동체 소식

#### ■ 목주기도 성월/전교의 달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목주기도를 매일 바쳐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기억합니다.

#### ■ 전교주일(World Mission Sunday) 2차헌금

- 20일(일) 전교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 낙태 반대 서명운동

- 본당입구 게시판에 준비된 카드를 작성하여 총무에게 주시면 모아서 발송합니다.

#### ■ 교무금 안내

매월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 ■ 평협회 안내

- 20일(일) 오후 1시

#### ■ 구역모임 안내

- \* 4구역 1반 : **25(금) 7시**, 김병철 베네딕도 가정 15304 Foster st, OP KS
- \* 3구역 : **26(토) 7시**, 감영진 라파엘 가정 9315 W 150th st, OP KS

#### ■ 전례 상식

- 주일에 타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성당(한인/미국)에서 주일미사에 꼭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를 못할 경우 고해성사를 하시고 영성체 하셔야 합니다.
- 전례봉사자는 미사 참례전 고해성사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제대 앞을 지나갈때는 깊은 절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 전례 성가

	입 당	예 목	성 체	파 건
금 주	450	212	174	63
차 주	459	37	164	68

####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시연(엘리사벳)	차호섭(요셉) 조지연(마리아)
차 주	박태주(로마노)	감영진(라파엘) 한춘희(라파엘라)

####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정예찬(미카엘)	김정훈(로베르또) 김지안(요한)
차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김정원(안젤라) 김정빈(바오로)

####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태중(예레미야), 김동술(요한)
차 주	감영진(라파엘), 차상욱(펠릭스)

#### ■ 애찬 봉사자

금 주	7조: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차 주	8조: 김명은, 한춘희, 최선윤

####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뉘었을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8월 25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 그림 묵상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오 28, 18-20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1-5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밀려들리라.>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0,9-18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16-2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 생명의 말씀

##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복음서를 말할 때, 흔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담은 책으로 표현합니다. 다양한 활동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엮은 것만은 아닙니다. 문학적으로도 복음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문학작품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짜임새 있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고 이것이 그 복음서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갈릴래아. 우리에게 친숙한 지명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셨다고 전합니다. 가장 먼저 요한 세례자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 유혹을 받으셨으며, 갈릴래아 호수 근처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다양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갈릴래아는 이렇게 예수님의 활동을 특징짓는 장소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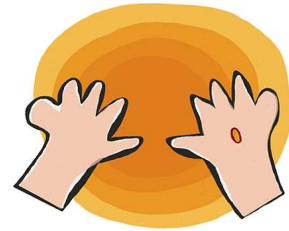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 이 산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마태오 복음에서 언급하는 산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마태 4,8) 세 번째로 유혹합니다. 흔히 유혹 산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마태오 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마태 5,1) 산상 설교의 첫 부분에도 산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십계명을 선포하던 구약의 모세처럼 산에서 군중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일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마태 17,1). 그리고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이 중에 어느 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혹이나 산상 설교나 거룩한 변모 사건 역시 모두 갈릴래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파견하는 모습은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함께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그들이 듣고 배운 복음

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에 예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제자들의 부르심,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사명은 모두 갈릴래아에서 이루어집니다. 갈릴래아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따랐던 장소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할 사명을 갖습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응원합니다.

게다가  
나와 '함께' 있어 주겠다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 말씀의 이삭

##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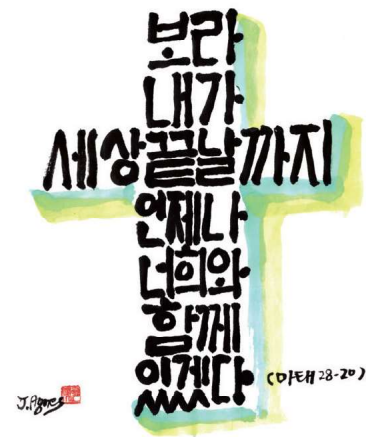
여중학교 시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의식주(衣食住)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으뜸이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50명이 넘는 학생 중에 제가 가장 먼저 큰 소리로 “집이요!” 하고 외쳤습니다. 좌중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쏟아 냈습니다. 민망했던 기억이 있지만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음식도 옷도 소중하지만, 왜 그런지 가슴 안에는 늘 좋은 집이 그리웠습니다. 음식은 나물만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옷은 적당히 저렴하게도 멋을 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은 제 능력으로 척척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서 꿈속에서 상상의 세계를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지으신 한옥은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영화를 보아도 좋은 집이 나오면 내용보다 집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 후도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늘 불만이었고 꿈은 커져만 갑니다.

나이란 꿈도 축소시키는 힘을 가졌는지 점점 집에 대한 꿈이 줄어들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게 집에 대한 꿈을 이루었습니다. 새벽기도마다 한마디씩 후렴으로 넣은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어떤 집일까요? 딸 세 가족과 함께 사는 집입니다. 딸 셋과 사위 셋, 손주 셋과 저까지 열 명의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을 지었습니다. 물론 한 지붕 안에 집은 다른 가족이지요. 이만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이 아닐까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집들은 많이 불편합니다. 평수도 넓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니라면 이런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는

나며 얼굴을 붉힐 법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을 강요하면 저는 엄마도 아니지요. 가톨릭 신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딸들은 자기 집을 챙기면서도 엄마의 불편을 먼저 생각해 줍니다. 딸들은 새 집에 대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사위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이나 계단에서 만나면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지킬 것은 지키며 예의를 지킵니다. 지하 패밀리 룸에서 서로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환담도 나눕니다.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습니다. 자유가 첫째 조건입니다. 전 복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벽 너머에 제 딸들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칩니다. 이만한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생의 가을에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해 본 만큼 내 언니나 동생에게 이익이 간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아쉬웠는가”라고 성모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만 기억하라고요. 주님, 부족하고 못난 저에게 주신 이 엄청난 선물에 온몸을 다해 감사기도 드립니다.

신달자 엘리사벳 | 시인

# 복음묵상



캘리그래피  
정승원 아네스